

**이동근**

1 성장한 각막  
천, 종이, 석고붕대, 아크릴물감,  
스프레이, 레진, 본드, 실, 끈, 전선  
124x84x16cm(cm) 2023

2 각막과 시선 사이  
아크릴물감, 털실, 먹, 레진, 스프레이  
34x31x6(cm) 2023

3 성장한 각막  
천, 종이, 석고붕대, 아크릴물감,  
스프레이, 레진, 본드, 실, 끈  
100x80x20(cm) 2023

4 성장한 각막  
천, 종이, 아크릴 물감, 스프레이,  
레진, 석고붕대, 본드  
95x82(cm) 2023

**임다울**

5 비두만(飛頭蠻)  
라피스 라줄리, 사파이어, 스피넬,  
아이올라이트 등 석재, 캔버스에 유채  
2x39cm 2021

6 메아리 Echo  
컬러 시트, 유리  
가변 설치 2023

7 최재연 Choi JaeYeon  
알루미늄 합금, 황동(Brass),  
패브릭에 디지털 프린트, 종이, 루비,  
스피넬, 지르콘, 아벤추린 등  
석재를 부착한 캔버스에 유채  
234x96x32(cm) 2023

8 프시케 Psyche  
배민진의 아이폰 13 프로, 박민영의  
아이폰 X, 영상(01'00"), 레진,  
플라스틱 필름  
가변 설치 20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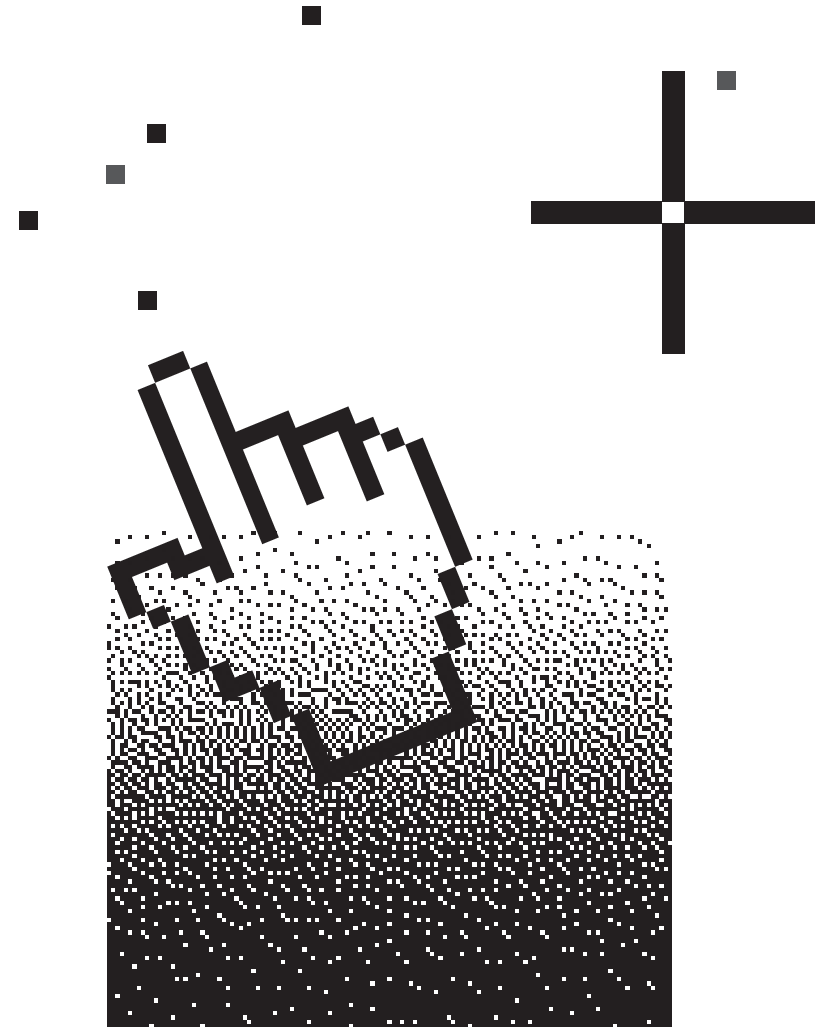
**임성빈**

9 Fan  
철, 거울, 시트지에 디지털 C 프린트  
30x30x30(cm) 2023

10 Incorrectly rendered object1  
철, 시트지에 디지털 C 프린트  
23x70x30(cm) 2023

11 Pink fat lady chair  
철, 시트지에 디지털 C 프린트  
100x60x45(cm) 2023

접촉 환원 CONTACTING PRESENCE  
이동근 LEE DONGGEUN 임다울 RHEEM DAUL 임성빈 LIM SEONGBIN  
2023. 12. 27.((WED))-2024. 1. 6.((SAT))



스페이스 카다로그 SPACE CADALOGS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58-13층  
3F, 58-1, SUPYO-RO, JUNG-GU, SEOUL

2023. 12. 27.((WED))-2024. 1. 6.((SAT))  
월-금 1시-7시 | 토, 일 1시-6시  
MON-FRI 13:00-19:00 SAT, SUN 13:00- 18:00

## 접촉 환원

2023. 12. 27.-2024. 01. 06.

이동근, 임다울, 임성빈

닿을 수는 없어도 추적의 과정 속에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거나 갖추어 가는 존재들이 있다. 이들은 검색된 매스미디어의 이미지를 경유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 편재하는데, 선명한 밝기와 채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온도, 질감, 매스는 액정의 얇은 온기와 매끄러운 표면 속에 균일하게 압축된다. 그리고 찰나의 자극과 호기심 속에 소비되어 내던져질 존재들은 서버를 넘나들며 유사 존재들을 양산하거나, 방대한 데이터의 뒤편으로 밀려나 우리에게 망각되어지고는 한다. 이들은 지각되었으나 만져지지 않고, 있는 듯하나 없기도 한 환영이자 데이터로 존속할 뿐이다. 저장된 기록과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은 실체가 지구 저편에 있는지, 혹은 그저 관념에 따라 편집된 허상에 불과한지 알 길이 없다. 사실은 가까이 있었으나 이미지로 박제가 되며 멀게 체감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실존의 유무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체의 일부이자 주체에게 반응을 요하는 에너지로써 현실에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망령으로 전송된 존재를 뒤쫓거나, 거꾸로 이들의 껍질을 빌려 존재성을 확립하려는 창작자(이동근, 임다울, 임성빈)이 있다. 이들은 웹 서핑에서 수집한 낯선 정보와 이미지의 파편으로부터 본인들이 마주했던 존재의 단서를 찾아보지만, 추측하고 붙들려 할수록 존재의 실체는 원상 복구되지 않고 변이된 다른 몸체로 출력되고 만다.

전시에서 참여한 세 명의 작가들은 웹 상에 흩어진 이미지들을 현실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물리적 변화를 보여주나, 공통적으로 인식에 있어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을 구현한다. 불안정한 이미지가 독자적으로 설립된 오브제(이동근), 물리적으로 접할 수 없는 존재를 현실화한 얇은 입체(임성빈), 혹은 정체를 확립할 수 없을 만큼 둔갑된 모습 등(임다울), <접촉 환원>展에서 공개되는 작가들의 미디어들은 만남이 불가능한 존재를 매개하기 위해 이미지가 실제로 변모된 상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류에 봉착한 작가들의 미디어들은 존재를 향한(존재하기 위한) 그들의 추적이 끝내 마칠 수 없을 여정임으로 밝혀진다.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공간 속을 걸도는 환영은 관찰자들의 지각을 교란시키며 언어상의 정립보다 존재를 향한 사유의 표류를 유발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존재의 일부가 드러나면서도 동시에 은폐된 역설의 미디어들은 여기에 있으나 없기도 한 생명체를 우리 곁으로 불러들인다. 미디어들 속에는 생명체 스스로가 완전히 출현하지 않기에 그 고유성은 당연하게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명체의 일부이자, 생명체의 허상이기도 하며, 생명체 그 자신이기도 하는 실재적 환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독립된 개별자로 존립한다. <접촉 환원>은 이처럼 비물질적 실존과 맞닿으려는 시도 속에 발현된 물질 현상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전시 제목의 직역과 달리, 이곳에서 벌어지는 '접촉 환원'은 닿으면 닿을수록 본디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에서 원형의 회귀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존재의 무방비한 노출이 아닌 엄폐로 인해, 보는 이들은 존재를 향한 끝없는 모색을 추동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작가들이 구축한 다복합미디어들은 존재가 개념 안에 존속되길 거부하고, 존재의 복합적 상태가 개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을 펼친다. 환영이자 실재이고, 총체이며 또한 개체이자, 의미와 무의미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접촉 환원>展의 미디어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객체/타자를 향한 주체의 인지적 점유 대신 관계지향적 사유를 일으키도록 한다.

글 양기찬

**이동근** 조각이라고 하기엔 물성이 얇으며, 회화라고 불리기엔 환영에서 도출된 그의 이미지는 특정한 매체로 귀결되지 않는다. 정보의 단편적인 단서로부터 현상을 완전히 파악하고자 추가 정보를 수집하듯, 작가는 결핍 상태의 이미지가 중력 속에서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미지의 물질을 증식시킨다. 그 과정이 선험적인 논리가 아닌, 감각의 개연성에 따라 점층적으로 입체 형상을 갖추는 방식으로, 이는 서로 다른 불완전한 이미지들의 접합과 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과정에서 작가는 물리적으로 안정된 지지대를 안으로부터 뒷받침하는 대신, 얇은 레이어 막들을 겹겹이 쌓으며 외면의 껍질을 이루는 형식을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양상이 형성된 배경에는 데이터 이미지가 독립된 존재로 용납될 수 있을 조형에 대한 작가의 오랜 자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를 가능케하고자 망막에 맺힌 디지털 이미지의 잔상(혹은 파편)을 다시 그려내거나 출처 모를 심상을 이미지화 한다. 단연 온전할 수 없을 이미지 조각이기에 작가는 화면 위로 외적인 요소들을 덧입힘으로써 현실에 존립할 몸을 갖추어 주고자 한다. 그러나 언제 멈출지 모를 이미지의 증폭은 어느 순간 중력의 제약을 맞닥뜨리며, 실존하기 위한 환영의 자유로운 누빔도 임시로 중단하기에 이른다.

**임다울** 작가는 자신의 작업 안에 도깨비와 같은 면모를 확인한다고 했었다. 오늘날에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빨 달린 도깨비의 도상과 반대로, 과거 선조들의 문헌들 속에 묘사된 도깨비는 각기 다른 지역과 시기에 따라 외형이 달리 표현되었다고 한다. 그 모습은 그들에게 선명히 감각된 현상으로 다가왔으나, 그 실체는 본 적이 없기에 여러 형상으로 둔갑한 듯 서술이 되어있다. 임다울 작가는 이러한 도깨비의 수수께끼 몸처럼 고체와 액체의 상태를 넘나드는 액정의 물리적 현상과 그것이 발현하는 타자/객체의 상호 연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관심사는 그가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캔버스이자 동시에 조각이기도 한 프레임 위로 반투명 실크 이미지를 입혀준 <최재연>(2023)이 적절한 예시일 것이다. 해당 미디어는 특정 주기에 따라 이미지를 탈복하고 다른 이미지로 덧입히길 반복하며, 동시에 관객이 마주하는 거리와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의 환영과 조각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로 인해 온전한 모습을 단번에 파악할 수가 없는 '최재연'의 정체는 눈앞에 현전하고 있음에도 없는 듯한 상황을 조성한다. 이와 같이 다층적인 환영과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상은 대상을 인식 안에 포섭하려는 주체의 권위적인 시도를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임성빈** 말초적 자극을 유도하는 릴스, 상업적 목적으로 연출된 대량의 상품 이미지, 그리고 편집용으로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유료 이미지들 등, 유통되는 웹 이미지들이 야기하는 정동과 인식이 작가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다. 단발적으로는 유저들에 의해 가볍게 소비되는 디지털 존재들이지만, 유통의 과정과 노출의 빈번도에 따라 의미가 확고해지는 이들은 작가에게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행위를 유도하는 실제 없는 실체로 비추어졌다. 미디어들 사이에 두고 존재와 존재가 접촉하며 동시에 분리되는 상황, 곧 찰나에 의식 속으로 내재되다가 외재 되는 상황을 마치 미완결의 렌더링처럼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형상을 둘러싼 작가의 사유는 현실의 공간에 서있는 이미지의 형태로 표출된다. 근래에 그는 일상에서 수집한 디지털 이미지를 시트지로 출력하여, 평평한 철판 구조물 위에 덧입히는 형식을 선보였다. 작가는 해당 창작물을 어디까지나 조각이 아닌 입체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해당 방식은 3D프로그램에서 모델링 위로 이미지를 랩핑하는 과정을 모방한 형식이다. 3D툴과 차이가 있다면, 그는 가상 속이 아닌 가상을 현실 위로 랩핑 한다는 지점이다. 이처럼 물질이면서도 비물질이기도 한 현상을 구현하며, 작가는 감각과 관념의 간극을 가시화한다.